



168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437번길 67 손곶성지 Tel : (031)263-1242 Fax : (031)263-1252



손곶편지 스물세 번째

지상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것이라면 그건 꽃이 아닐까요? 요즘 우리 성지에는 꽃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밤새 누군가 성지에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가시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성지에 와서 진입로 옆 화단을 말끔히 정리하고 꽃과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물론 신자분들도 계셨지만 신자도 아니면서 성지 주위에 사신다는 이유로 성지를 사랑으로 가꾸시는 모습에 너무나 고맙았습니다. 그렇죠. 성지가 어찌 천주교만의 자산이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죠.

성지로 올라오는 길에 보게 되는 벽화, 우리 성지를 주제로 한 벽화는 전 마을 대표님이 당신의 담에 직접 그리셨는데 그분도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을의 일에 동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부활 성야에는 새 오르간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고로 우리 성지에 와서 20년 동안 소리를 내준 옛 오르간은 떠났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젊은 오르간이 이어받아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반주 봉사자님도 새 오르간과 어서 친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 홈페이지가 부활절에 열렸습니다. songol.or.kr입니다. 아직은 가구가 들어오지 않은 새 아파트 같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단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구경들 오세요. 신생 홈페이지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야 검색 목록의 상단에 자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외 화장실의 오래된 배관을 청소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막히던 고질적 현상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도 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관리장으로 수고해 준 베드로 형제가 개인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에는 세계청년대회의 상징인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우리 성지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교우분들이 미사에 오셔서 십자가와 성화를 맞이하고 경배했습니다.

세계를 순회 중인 십자가이고 성화이지만 그로 인해 세계인의 손자국이 묻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 손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내년 8월에는 우리 성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리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십자가의 길을 한창 가꾸고 있습니다. 우선 14처 상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랫단을 안정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옆 공터, 방치되었던 그 자리를 평탄하게 고르고 주위에 목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나무토막들은 지난 폭설 때 쓰러진 나무들을 자른 것입니다. 죽어서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 나무들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14처 옆길은 전보다 넓혀서 환해졌습니다.

사무실 앞 잔디밭에 있던 벤치 두 개를 공터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별 쓸모없던 공터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석재 파고라가 빠져나간 잔디밭은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례객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1.2.3 주차장은 물론 잔디밭에도 차를 대야만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포화상태를 경험해 왔습니다. 성지 신부인 제 입장에서는 먼 길 오신 순례 교우들에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성당은 수용가능한 좌석이 108석인데 며칠 전에는 미사에 150분이 오셨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차 한 대에 평균 두 분 이하로 타고 오시는 터라 주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순례 교우들이 덜 불편하게 성지에서 머물다 가시기도록 더 맘쓰고 애쓰겠습니다.

4월 8일에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 온 ‘손골 마리아’님께서 오셨습니다. 재작년 폭설로 나무가 부러지고 뽑힌 자리에 마리아 동산을 조성하고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주신 한진섭 요셉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식은 5월 2일 성모신심미사 후에 수지구장 서복원 베드로 신부님 주례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밝히고 감사를 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순교자 현양대회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교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170여 명의 복사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년에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행사였지만 올해는 빵꾸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돈으로 인한 후회나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양 대회 재정 보고를 들은 수지지역의 본당신부님들이 백만 원씩 각출하여 부족분을 메꿔주셨습니다. 그 형제애에 어찌나 고맙던지 속으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천동 성당에는 새 오르간의 구입 비용, 그 큰 금액을 전액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빛을 어찌 갚아야 할지...

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히 맘도 쉬고 숨도 쉬고 은총을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성지를 가꾸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른들께서 ‘빛함에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 정말 맞습니다.

성모성월인 5월입니다. 후원자님과 그 가정이 포근하고 여유롭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지라도 좋으니 가깝거나 혹은 먼 곳이라도 순례를 다녀오시면 어떠실런지요? 혹시 아니까? 천사가 성지 순례의 발걸음을 금으로 된 자로 채고 있으실지 말입니다.

손골성지에서, 다미아노 Dream.

2026년 손골 봉사자의 날

4월 11일(토), 미사 후

손골성지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손골성지는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손길로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과 정성은

성지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공동체가

함께 이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골성지 쉼터의 카페지기를 기다립니다.

정화와 회복의 쉼터, 손골성지 작은 카페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실 카페지기를 기다립니다.

- 봉사시간 : 미사 전·후 (편하신 시간으로 조율 가능합니다.)
- 봉사내용 : 카페 청소 및 순례객 안내
- 문의 : 손골성지 사무실 ☎ 031)263-1242

성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준, 강순진, 강식순, 강원덕, 강윤숙, 강혜영, 고종희, 곽외심, 권금숙, 권택인, 김경미, 김광조, 김기연, 김기창, 김기택, 김도훈, 김도희, 김동은, 김명수, 김명희, 김문경, 김미영, 김상훈, 김성겸, 김수현, 김순태, 김순환, 김시환, 김억래, 김연철, 김영자, 김인숙, 김재성, 김재우, 김재훈, 김정자, 김종이, 김주봉, 김창기, 김창로, 김청자, 김춘기, 김태경, 김현기, 김혜선, 김혜연, 김홍일, 나명희, 남정훈, 민경화, 박경수, 박광윤, 박금자, 박미애, 박성옥, 박순희, 박완자, 박인숙, 박재영, 박창호, 배제호, 백미경, 백정란, 성순옥, 손승백, 송경호, 신금란, 신동옥, 신지영, 신현순, 안영기, 양미진, 양종만, 엄용희, 오광희, 오병택, 오용일, 오이진, 유미정, 유현정, 윤상용, 윤성옥, 윤종필, 윤혜주, 윤호용, 이경숙, 이경옥, 이근순, 이덕경, 이명미, 이문복, 이상순, 이선민, 이세영, 이승준, 이영란, 이웅복, 이은화, 이정숙, 이정우, 이종숙, 이탁건, 이해경, 이형원, 이호성, 이호주, 임동구, 임상희, 임희자, 장명자, 정경순, 정구승, 정모유, 정보혜, 정소영, 정수진, 정승희, 정애란, 정연순, 정행자, 조성혜, 조영채, 주미선, 주재선, 최경숙, 최경자, 최수정, 최수환, 최영진, 최지순, 최훈근, 최희선, 한미녀, 한수정, 한애숙, 한지원, 함윤희, 허정희, 홍보경, 홍수경, 홍순기, 홍혜영, 홍혜진, 황애현, 황혜전, 황희연, (주)메디웬코스타

(2026년 3월 성지후원금 총 4,458,000원)

손골성지 소식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손골성지에서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부름심을 받으신 후원자를 위해서는 사망미사를 포함 3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사시간 안내

주일 · 평일 오전11시 (월요일 없음)

문의 : 사무실 ☎ (031) 263-1242

후원계좌 안내

신 협 : 03227-12-001983

농 협 : 235100-51-010119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예 금 주 : (재)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손골성지 홈페이지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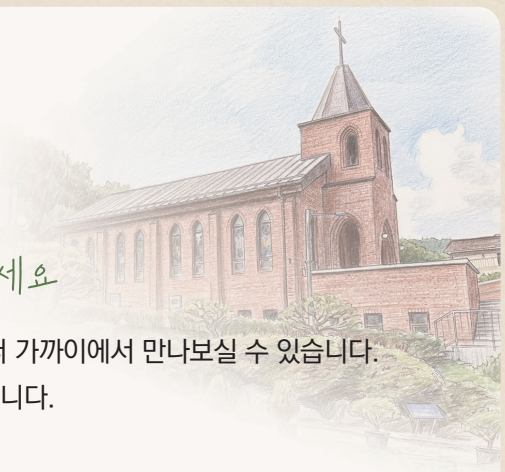
손골의 고요함을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기도와 힘이 있는 손골성지의 다양한 소식과 은총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손골성지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ngol.or.kr>



손골성지 관련 저서

- “성(聖) 도리 신부와 손골”
(한글, 불어, 영어) (윤민구 신부 외 지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공역)

- “성(聖) 도리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도리 신부와 병인박해”
(한글) (윤민구 신부 지음)
- “성(聖) 도리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역)

※ 이 책들은 손골성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